

迎日鄭氏尋源錄序

朝東之水爲百川而烏川最其巨流也鄭氏之以烏川爲貫者始自滎陽公發源而大至文忠公圃隱先生而益大之如河源之有星宿海其流又滾滾長流二先生之貞忠大節文章道德無庸尋源而海東人皆知之其派流之滾滾不盡者歷世長遠名公巨卿鴻儒碩匠爲各家派分之名祖聞人者又指不勝僂烏川之源流儘遠且長矣余於三十年前猥以謬望冒居迎日邑誌摠裁之任凡圈中之卓行偉蹟以鄭氏光耀乎誌者殆三之二焉余固艷歎之深矣近又鄭斯文華植甫集成尋源錄一局造余而請弁焉就觀所錄則據誌者多而誌之所未及者亦多何其考之博而錄之詳也佔畢齋金先生莅茲謁烏川院詩曰赴北曾經孤竹國南來今見鄭公鄉此身南北還多幸景仰

序 文

秋風嶺 및 金陵 땅 直指寺 黃岳山에 이르러 北向 十里許
를 眺望하면 壯嚴하고 秀麗한 牟蘭峯과 極樂山이 鎮座
하고 兩手를 南向으로 舉手한 듯 두 줄기로 東山과 西山
을 이루고 守護山 靈峯 牧丹峯 極樂山 大谷山 深谷에서
흘러 내리는 맑은 물이 東山 西山間을 南流하여 廣野에
이르고 다시 直指川과 合流하여 灑々長流 善山 洛東江
에 이르다 極樂山下 山所谷洞 直洞 仁義 禮智 信洞이
廣範한이 溪谷에 一圓聚落을 이루고 있어 이름하여 金
山 鳳溪라 하다

吾門延日鄭氏 氏族이 高麗睿宗朝에 名賢이신 鄭公諱襲

明號榮陽公을 始祖로 迎日 烏川에서 發源하여 後孫이
延日과 永川에 大聚落을 이루고 太學博士 奉翊大夫 日
城府院君 崇錄大夫 益陽府院君 典工判書 工曹判書 端
宗大王廟 肅慕殿配享 忠臣烈士 司成公 이 로 해 아 려 말 할
수 없이 數多한 名賢功臣이 蒼空에 星座와 같히 國家를
爲하여 바친 빛나는 行蹟들이 世譜에 빛나다 集賢殿
司成諱從詔公이 同試 同職의 成公三問 朴公彰年先生과
더부러 國政經倫이 重一世드니 春秋大義 端宗謀復事에
連坐되어 棄官落鄉하신後 恒常 金山 鳳溪移居를 意中
하시다 一他界하신 先世의 遺志에 따라 弘文館 巨星으로
京鄉間 追仰을 받으신(公은 正義를 爲하여 練奏直言을

서슴치 아니하였다 (奎章閣史記) 校理號晚翠堂諱以僑

公이 鳳溪로 移住하시니 吾門延日鄭氏鳳溪開基之中始

祖이시라 以降代代로 鳳溪에 聚居하며 修身齊家治國

平天下의 經倫大道와 忠孝大節 隣保相扶의 履踐을 至

上課題로 信奉하여 高官大爵의 無功한 罪過보다는 官

職의 高下에 拘碍치 안코 國家社會에 赫然한 裨益人間

으로서의 師表가 되기를 使命으로하는 氣風高節을 世世

傳傳 連綿히 世譜에 收錄되어왔다 我國은 自古로 國

民이 百가지 姓으로(氏族)百姓 卽 國民을 構成하고 有

功의 多過로 大小姓이 形成되어왔다 氏族은 代代로 烝

相이 열마나 輩出되었느냐에 따라 氏族의 자랑으로 生

覺하는 門中도 있으나 이는 偏見이고 吾門은 鳳溪에서
科擧及第 試職階職의 旗幟가 四十余基나 揭揚되었으나
(歷史上地方卿里에서 稀少한 事例) 이를바로 榮光으로
生覺하기 前에 國家에 有功하고 國民을 爲한 學風이
世上에서 얼마나 尊敬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家門의 光
榮으로 여겨왔다 (肅宗景宗朝 嶺南各邑 有名儒林代表連
名爲延日鄭公推薦文疏狀上奏事) 近史에 科學文明이 西
歐에서 發遠하여 衝擊的으로 닥쳐오고 너무나 科學一邊
倒로 追從하는 風潮속에서 모—든 價値觀은 顛倒되고 人
間의 自己疏外 機械的社會化로 人間도 機械化된 狀況
下에서 人間은 그 向方과 未來에 對한 求心點을 喪失한

체 人間과 人間關係 氏族과의相互關係 家族과의相互關係
係가 混濁하고 分裂된 社會相을 露出하고있다. 이러
한 現像은 非但 韓國뿐 아니라 일찍이 歐美諸國을 爲始
한 世界의 苦悶으로되고있다. 急激히 變遷하는 世界史
的 潮流속에서 人間의 理性만이 萬古不易의 眞理라는
大原理및에서 吾門의 傳統的精號을 具顯하여 人間倫理
觀의 確立과 諸般儀式의 簡素化와 科學하는 人間生活
의 向上을 爲하여 創意 德性 正義 勤勉 誠實 和睦 奉仕
이모든 教育的 現代感覺으로의 陶冶하고 現代知識 現
代의 能力을 開發涵養하여 國家有爲 有能의 人材宗團으
로서 遠緣과 地距를 一日生活圈으로 短縮한 今日의 文

明속에 歷史的使命感을 띠운 役軍임을 自慊하여나갈것
을 다짐코저 하는바이다

族譜는 傳統을 金科玉條로 自負하는 英國을 爲始하여

中國 韓國 泰國 美國 日本 佛蘭西 西獨이 族譜의 歷史
가 깊고 그意義와 使命을 課題로하는 族譜學은 歐美各

國에 活潑하다 西紀一九六九年 미국 유타洲 솔트 레이

크市에서 美國族譜學會 創立七十五週年을 마자 譜學國
際會議에 韓國도 招請을 받은바있다 (미국의 族譜는 韓
國의 八高祖圖와 갖히 詳細하다)

吾宗族譜는 悠久한 年代를 거치면서 三、四十年式 間隙
을 두고 補完하여왔으나 보기가 힘들고 또보지도 못하니

現代人은 貴重한 族譜에 對한 關心도 적어지고 하여 一部에서는 父子兄弟家族關係 親族關係의 意義조차도 動搖를 이리키는 極端的 癡倫思潮가 없다 斷言할수 없다 하물며 우리는 世界歷史에서 보는바 亡하여가는 氏族이나 民族의 悲劇속에서 人心이 極度로 惡化하고 同族相爭으로 數없이 滅亡한 事例를 알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文化的 危機속에서 여러뜻있는 親族과 더불어 알기쉽고 읽기쉽도록 世譜를 修單하여 祖上과 我(나) 그리고 子孫의 脈寶를 江湖親族에게 올리고저 하는바 我(나) 自身을 깨닫고 서로가 自醒하여 崇祖爲孫 나아 가 社會에 貢獻하는 指針이 되면 宗門의 光榮일까하는

바이다

崇陽公二十八世孫

鄭

周

永

謹記

(號陽圓空)

新羅儒理王九年에 辰韓六部名의 하나를 鄭으로 賜함에

따라 得姓한 우리 迎日鄭氏는 高麗睿宗朝(西紀一一〇

五年—一一二二年)에 樞密院知奏事를 지내신 始祖襲

明할 아버지로 부터 家譜를 始作한 以來 三十有餘代年

數로 約八百二十二年(始祖할 아버지께서 世上을 떠나신

高麗毅宗五年 辛未—西紀一一五一年으로부터 起算)을

綿綿히 이어오는 동안 派譜로서 세 차례 合譜 卽大同譜

로서 두 차례를 修譜하여 오다가 丁酉年(西紀一九五七年)

봄에 이르러 大同譜의 續譜再修를 試圖하였으나 여러

가지 社會的與件의 制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第八

代 仁彥 할 아버지로 부터의 分派된 第二派中 第十二代

아니며 오직 人間이 人間다운 人間으로서 生活을 營爲
하기위하여 祖上을 알고 祖上을 理解함으로서 祖上의
遺績을 本받으며 그가운데서 子孫으로서의 自己位置를
깨닫고 族親間의 友誼를 敦懇히하여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 後孫들에게 祖上을 올바르게 傳해 알려주어 人間
生活의 糧食으로 물려 주자는데에 그 目的이 있는것이
므로 이번 修譜發刊을 契機로 우리子孫들은 祖上의 偉
績을 龜鑑으로 삼아 더욱더 바른 生活에 힘써 家門을
빛냄으로써 先祖의 恩德에 報答하고 國家社會에 有益
有能한 役軍이 되기에 힘써야 될것이다

못내 아쉬운것은 大同譜의 修譜完成인바 앞으로 뜻

있는 子孫들에 依하여 이번 派譜의 修譜를 맡겨름삼아
부遠히 大同譜 修譜의 集大成이 이룩되기를 懇切히 冀
求하면서 序에 가름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七二年五月 日

二十九世孫 昇 和 謹識

序 文

산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들이
열리듯이 예로부터 나라 있는 곳에 民族이 있고 民族
있는 곳에 氏族이 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民族에게 歷史가 이루어지듯 氏族에는 族

譜가 이어내려왔으니 무릇 우리 鄭氏는 세각기의 貫鄉

을 이루기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가 그 根源을 찾자면 멀

리 新羅 初期의 六部村長의 한분이신 智伯虎의 後裔로

서 以來 千數百年 新羅 高麗 李朝를 거쳐 오늘에 이르

기까지 韓族 六大姓氏의 하나로 이땅에 뿌리박고 錦錦

히 代를 이어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 延日 鄭氏는 高麗 毅宗朝의 樞密院 知奏事 襲_字

明_字를 始祖로 하여 주로 韓民族 殷盛의 땅인 新羅의 故

土 해돋이마에 자리하여 千年의 歲月을 살아오는 동

안 德을 쌓고 學問을 익혀 出仕하면 나라의 棟樑이요

入第하면 孝悌의 龜鑑으로 참대밭에 靑竹이 자라듯 三

韓의 甲族으로 恒時 그 族閥이 푸러러왔던 것이다。

거듭 우리 生員公派는 敎理公 以_字 僑_字 계서 永川으로

부터 秋風嶺下 이 金山旁 鳳溪에 卜居하여 지금의 然

字까지 무려 十八代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國運의 盛衰

와 時運의 消長에 따라 더러는 흠어지고 더러는 모여드

는 人間常事를 겪기는 하였으나 太平 큰 局內의 先塋

을 위시하여 隣近의 先山들을 제각기 모시고 鳳溪를 主
抽으로 百數十戶의 族人들이 敦誼와 和睦을 누리고 있
으니 이는 오로지 在山하신 先代 父祖들의 돌보심이
우리 後孫에게 미침이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나라에 國風이 있듯 家門에도 家
風이 있는 법이다。 歷史가 오래인 民族일수록 傳統文化
를 사랑하고 系譜가 깊은 氏族일수록 자기 家門의 光
輝를 생각한다 人類歷史의 榮光인 文化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肅宗 이후 우리 族譜를 修單 하기가 이제 여섯 번째
를 해야 한다。 부질없이 무리지어 排他하는 생각

에서가 아니라 飲水하고 思源하자는 뜻에서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고 세상 物情이 소연한 가운데서도 이
修譜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八十老癯를 무릅쓰시고 몸
소 都聽을 말아보신데 대해 송구한 마음 禁할수 없
아오며 物心 兩面으로 힘을 모아 준 族人들에게 절 드
린다。

끝으로 이 일을 위해 큰 돈을 보태준 周永 族兄에게
거듭 감사 드린다。

一九七二年(辛亥)十月 日

槐 永 謹稿

영일정씨사성공파보서
迎日鄭氏司成公派譜序

先王之政重氏族焉放勛之平章協和始於親睦成周之司商

內史列之宗伯是也惟我迎日之鄭以高麗知奏事諱襲明爲

始祖至十一世有八派分系文忠公策一派也惟我生員公第

二派也始譜於萬曆乙亥 仁祖己丑 肅宗庚子再修而庚

子之本刊於 英廟甲午即世譜也又修於乙丑乃續譜也歷

世彌久雲仍克昌鴻功碩德文章節行焜耀譜中俾後承者有

所按據油然而生孝悌肅然而興敬慕譜之有補於世教大矣

而世值俶擾氏族散在八垠勢難八派合譜者今九十有餘年

矣以故各譜其派者往往有之迺於乙未秋吾生員公派爲司

成公後者相與謀曰吾譜未修久矣若以大宗合譜無期俟之

則恐有杞宋之歎遂開局于環丘世德祠從舊譜所也丙申秋

將付鈔梓僉宗責余一言以叙之顧老弊何敢當是役於戲各

修派譜雖出於不得已若考諸上系而合則可謂大同豈非所

謂中散而末合萬殊而一本者耶且孝悌敦親是修譜家之恒

譚然古者自朝家至族師閭胥躬行率先每春秋酺祭讀法以

勸之觥撻以罰之猶其不贍况彝倫敦喪之今日乎若不硬着

擔旁則先王之政列祖之訓裔孫之因親難係其萬一凡我僉

宗請相與勉之哉

歲丙申七月下澣 司成公十五世孫 鎮默謹序

迎日鄭氏司成公派譜序

家而有譜猶國之有史史者一國之實蹟也譜者一家之敦史也何者國而無史則善無勸惡無懲治亂無所考矣家而無譜則祖先有美不傳不講隆替無所考矣是以先王之爲治也必先家族蓋家者國之本也故史之贊堯曰克明峻德以親九族九族既睦平章百姓協和萬邦周公制禮特立小史之職以奠世系辨昭穆程子亦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我國尤重氏族凡士大夫家莫不有譜以尊祖敬宗明世系悖孝悌其有補於風化大矣我烏川鄭高麗知奏事公始顯于譜而其修譜始千萬曆乙亥續于己丑及庚子甲午乙丑凡五次而今又九十餘年矣見今世變漸淡疆域中分無望於大同此吾司成公派派譜之所以起他雖有慊於大同之義亦不

害於異口統合之資也遂於乙未秋肇役於永陽環歸之世德
祠至丁酉春而功告訖諸宗以余爲金陵派之苗裔請置一言
于編端旣無以辭則作而曰國之治源於家孝第慈行于家而
國與天下之治在其中今異教橫流吾東禮法無復先王之舊
矣則爲人家子孫者能講祖先之美德有幾人哉如是而欲惇
其孝悌可易得乎此風俗之曰淪於淆簿而不可救者也今旣
修吾譜矣一開卷而祖先之忠孝道德文章事業瞭然在目孝
悌之心能不油然而生乎苟因是心而擴充之則一身一家盡
是孝悌而人人興行及于國則一國爲孝悌之國然則是譜雖
曰止於一家其風化之美將有被於國中矣向所謂家者國之
本者其在斯歟其在斯歟惟諸宗之相與勉焉也夫

歲丁酉仲春

司成公十六世孫

盱鎔盥手謹序

迎日鄭氏世譜

一代

鄭襲明 습명

고려 예종 조문
高麗睿宗朝文
과추밀원지주
科樞密院知奏
사이종
事毅宗五年辛
未三月二十一
日卒舊譜紹興
南송
南號墓迎日舊
年號墓迎日舊
邑址官廳後云
이구원난적유
而久遠難的有
壇碑陰記領議
政俞公拓基撰
여사유본전
○麗史有本傳
유실기
有實紀○亨迎

二代

子變均 습균

외위주부동정
衛尉注簿同正

三代

子謙牧 겸목

내시주부동정
內侍注簿同正

四代

子麟信 인신

태학박사
太學博士○五
은광후장적
代孫光厚帳籍
운봉위동정
云奉衛同正

차연
子次延
사재주부
司宰注簿

五代

子之泰 지태

친서 현손광
典書○玄孫光
후장적운주부
厚帳籍云注簿
동정 매기계
同正○配杞溪
군부인기계운
郡夫人杞溪尹
외부감찰어사
氏父監察御史
昇성

사보
子師保
주부동정
注簿同正

六代

子宗興 종흥

見 本板

화룡
子化龍
見 五板